

KOSDAQ | 자본재

티엑스알로보틱스 (484810)

검증된 물류자동화, 성장할 로봇자동화

체크포인트

- 티엑스알로보틱스는 2025년 3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유진그룹 계열의 물류 및 로봇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캐시카우인 물류자동화 사업을 넘어 로봇자동화 사업(공장 자동화, AMR, 소방 로봇 등)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
- 투자포인트는 1)주요 이커머스 고객사 Capex 확대에 따른 물류자동화 사업부 매출 성장 전망, 2) 로봇자동화 사업부 중장기적 매출 증가 기대
-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468억 원(-18.3% YoY), -12억 원(적전 YoY)을 예상. IPO 이후 외형과 수익성 모두 성장통 겪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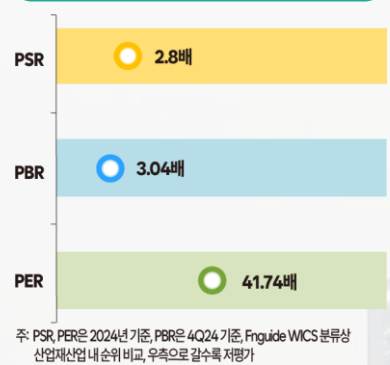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물류 및 로봇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는 태성시스템(2016년 설립)과 로탈(2011년 설립)의 합병으로 2017년 설립되어 2025년 3월 상장한 유진그룹 계열의 물류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3Q25 누적 기준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각각 85.6%, 14.4%를 차지

이커머스 및 물류 산업 변화 속,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중

이커머스 기업(E-commerce)의 풀필먼트(통합 물류관리) 서비스 중요성 증대에 따른 물류자동화 CAPEX 확대 예상. 이는 1) 이커머스 플랫폼의 물류 속도와 신뢰성 경쟁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았으며, 2) 국내 물동량 정체 속 물류 기업의 운영 효율화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 또한, 3) 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은 기업들의 물류자동화 투자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 글로벌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시장의 핵심 전방 산업은 제조업과 이커머스 등의 물류자동화. 물류자동화 사업부는 주요 이커머스 고객사의 풀필먼트 CAPEX 확대에 따른 완만한 매출 성장을 기대.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물류자동화 사업부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제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AMR 적용 기회를 모색하는 중

성장통 꺾을 2025년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468억 원(-18.3% YoY), -12억 원(적전 YoY)을 예상.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연초 이연되었던 주요 이커머스 고객사향 대만 사이트 매출이 4분기 반영 예상.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전방 산업 투자 위축 영향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265	332	572	468	547
YoY(%)	121.8	25.4	72.4	-18.3	17.0
영업이익(억원)	50	36	53	-12	-9
OP 마진(%)	19.1	10.7	9.2	-2.6	-1.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3	22	38	-7	-3
EPS(원)	198	188	325	-50	-18
YoY(%)	-16.4	-5.1	72.9	적전	적지
PER(배)	0.0	0.0	0.0	N/A	N/A
PSR(배)	0.0	0.0	0.0	4.8	4.3
EV/EBITDA(배)	2.2	4.5	4.2	207.9	351.1
PBR(배)	0.0	0.0	0.0	3.4	3.4
ROE(%)	24.2	12.8	16.2	-1.5	-0.4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4)	15,220원
52주 최고가	24,450원
52주 최저가	11,030원
KOSDAQ (12/4)	929.83p
자본금	62억원
시가총액	2,352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7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16억원
외국인지분율	1.66%
주요주주	유진로지스틱스 외 1인
	박종현
	57.60%
	9.9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1	-7.4	
상대주가	-11.4	-25.3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중 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티엑스알로보틱스는 물류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2017년 설립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유진그룹

계열 물류 및 로봇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2025년 코스닥 상장

티엑스알로보틱스는 **2025년 3월 상장한 유진그룹 계열의 물류 및 로봇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당사는 2017년 **태성시스템(2016년 설립)과 로탈(2011년 설립)의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물류자동화 사업부를 캐시카우로 두고 로봇자동화 사업을 통해 추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태성시스템은 2016년에 설립된 휠소터 제어시스템 기업으로,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Sub 터미널에 휠소터(Wheel Sorter)를 공급하며 성장해왔다. 설립 초기에는 CJ대한통운과 FedEx Korea, 인천공항 터미널 등에 고속 휠소터 제어 시스템을 공급했다. 2017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휠소터 사업을 확장하였고, 2021년 8월 유진그룹 물류 계열사인 유진로지스틱스에 인수되었다. 유진그룹 편입 이후에는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휠소터 및 컨베이어 라인을 턴키 형태로 납품하고, SSG.com, KT&G, GS그룹 등에 틸트 트레이스터 및 휠소터를 납품하는 등 국내 주요 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납품 레퍼런스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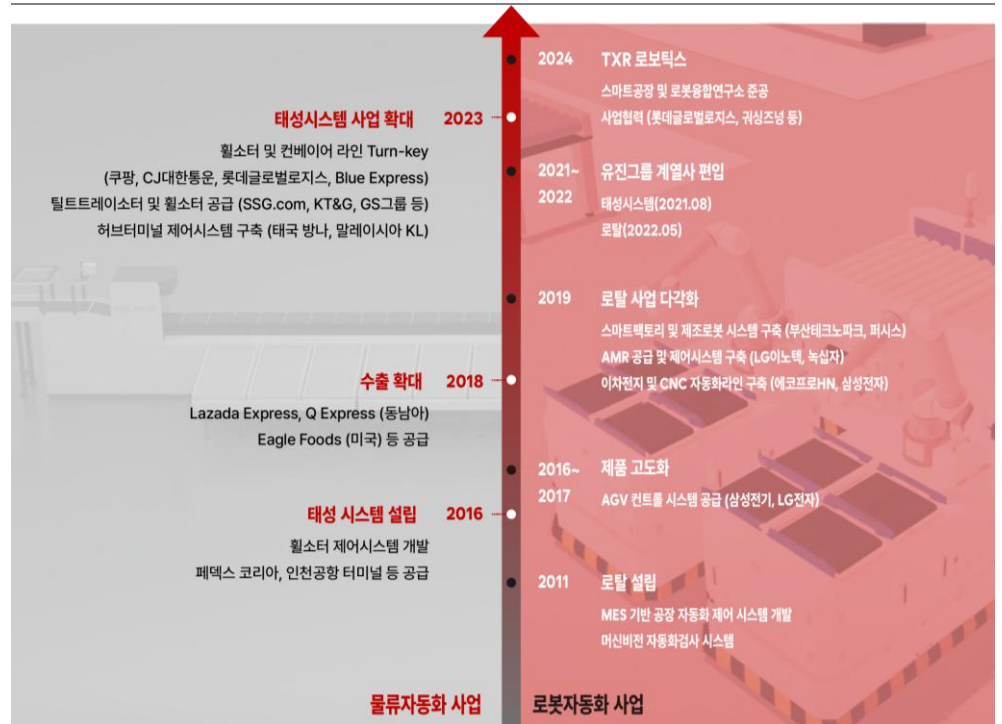
2011년 설립된 로탈은 부산대학교 기계과 비전연구실 출신들이 설립한 스마트팩토리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AGV/AMR(자율이동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Mobile Manipulator) 및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기반으로 2017년 삼성전기와 LG전자에 AGV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고, 이후 2019년 LG이노텍에 AMR 및 제어시스템을 공급, 에코프로HN에 이차전지 및 CNC 자동화라인을 구축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2021년 8월 유진그룹 물류 계열사인 유진로지스틱스에 편입된 태성시스템은 2022년 5월 물류와 로봇 자동화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로탈을 인수한 데 이어, 유통/제조물류 영역에서 휠소터와 AGV/AMR의 강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2024년 6월 흡수합병을 통해 로탈을 사업부화했다. 이에 따라, 태성(T)과 로탈(R)의 브랜드를 결합해, 물류 및 로봇자동화의 융합이라는 기업 비전을 반영한 티엑스알로보틱스(TXR Robotics)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유진그룹 내 물류 및 로봇자동화 핵심 계열사로서, 2025년 3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사는 두 사업부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입고부터 출고 전 공정까지 차별화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및 WCS(Warehouse Control System)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스마트팩토리 SCM 자동화 솔루션을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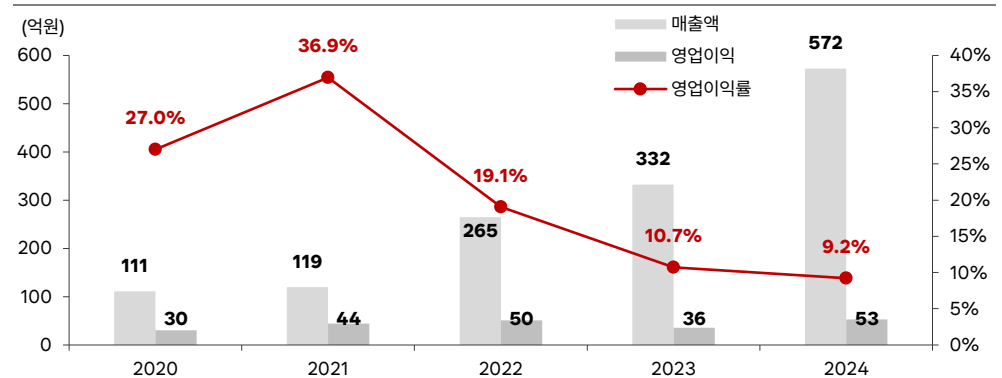
당사는 현재 2개의 공장과 2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 공장은 물류자동화 설비 생산을 담당하며, 부산 공장은 2024년 신설된 로봇 전용 공장으로서 AMR과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연구 조직은 부산의 로봇융합연구소와 서울 마곡의 AI 연구소로 구성된다. 부산 연구소는 로봇공학·비전 분야 전공 인력을 중심으로 로봇 제어·센서·비전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마곡 AI 연구소는 AI·로봇지능화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티엑스알로보틱스 주요 연혁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연도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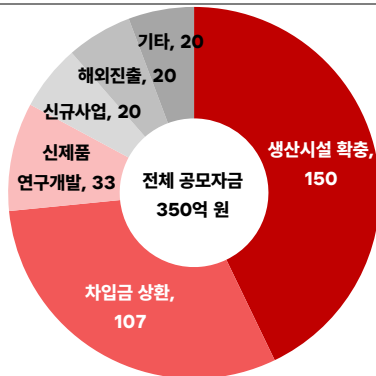


주: 2022년 5월 (주)로탈(지분율 100.0%) 인수했으며, 2024년 6월에는 (주)로탈 흡수합병해 사업부화함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공모자금 활용계획(2025~2027년)

(억원)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공모자금 활용 세부 내용

신사업 진출	- 로봇 Implementation 사업 - 소화로봇, 청소로봇, 철도차량 검사로봇 등 로봇 사업 다각화 - 제조유통 SI 사업 및 자동화 창고 인프라개발 컨설팅
로봇 자동화 사업 확대	- 로봇자동화 신제품 개발 (중소형 고객사 대상으로 공장장 개발) - 제조 공정 협동 장비 라인업 확대 -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개발
물류자동화 사업 확대	- 입/출고 공정 및 공정간 무인 이송 장비 개발 - 동남아, 유럽, 북남미 등 글로벌 고객사 확대 - 해외기업 기술 협력 및 해외장비 국내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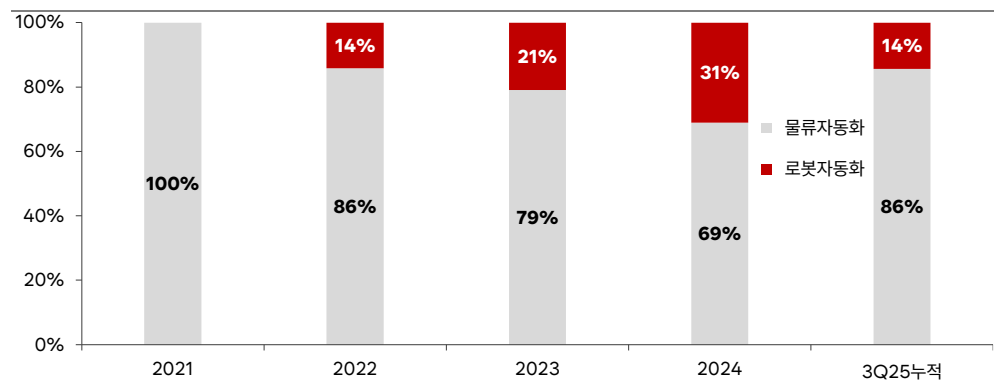
주: 1) 2024년~2025년: 기존 로봇 및 물류 사업 확대 2) 2025년~2027년: 신사업(서비스 로봇 사업 진출 등) 확대, 3) 2027년 이후: 해외 사업 발굴 및 구축,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개요

3Q25 기준 물류 및 로봇자동화 사업 비중은 각 85.6%, 14.4%

티엑스알로보틱스는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크게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Q25 누적 기준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각각 85.6%, 14.4%이다.

티엑스알로보틱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물류자동화 사업부는
휠소터 등 자동화 장비와 이를
활용한 Turn-key 솔루션을 공급

티엑스알로보틱스의 물류자동화 사업부는 자체 개발한 **휠소터, 플랩소터, 버티컬 틸트 트레이 소터** 등 물류자동화 장비와 이를 활용한 **Turn-key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물류자동화 사업(3Q25 누적 기준 매출 비중 85.6%)

휠소터(Wheel Sorter)는 회전 바퀴(휠 롤러)를 이용해 컨베이어 위를 흐르는 화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AC모터로 휠을 구동하고 스텝모터로 방향을 제어하여 화물을 정확히 분류한다. 동사 휠소터인 피보트는 기존 일반 컨베이어(분당 30~40m)보다 3배 이상 빠른 분당 120m의 고속 분류 속도와 99% 이상의 판독 정확도를 보이며, 시간당 약 6,000개~8,000개 화물의 자동 분류가 가능하다. 이커머스, 택배 화물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 식품, 공장제품, 의약품 등 전 분야의 상품을 자동 분류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플랩소터(Flap Sorter)**란 소터에서 1차 구분된 화물을 세분화된 목적으로 2차 분류하기 위한 장비로, 개폐식 플랩(판넬)을 이용해 두 개의 목적으로 추가 분류한다. 소

형 화물의 고밀도 분류에 적합하다. **틸트 트레이 소터(Tilt Tray Sorter)**는 트레이에 화물을 올려놓고 이동시킨 뒤, 목적지 도달 시 트레이를 기울여 화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비로, 직선 모터를 이용해 프레임의 이송하고 틸팅을 구현한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바닥면이 불규칙한 상품도 안정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Dynamic Gapping Belt Conveyor**는 자동분류기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화물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분류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컨베이어로, 고속으로 최대한 많은 화물을 분류해야 하는 휠소터 시스템에 적용된다. **90도 디버터**는 제품의 방향을 직각으로 전환해 다음 공정으로 이송시키는 장비로 주로 제조라인에 활용된다.

동사의 물류자동화 사업부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분류 솔루션을 통합한 Turn-key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 현장의 생산성과 정확도를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물류 집하장에 설치되는 화물 구분기(Sorter)는 상위 제어시스템인 SMS(Sorting Management System)과 연동되어 서버터미널 내 분류·이송 효율화를 통한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 최적화에 기여하게 된다.

물류자동화 사업부

턴키 매출 인식 과정

한편, 동사의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설계, 조달, 제작, 시공,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턴키 매출은 제품 설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검수가 진행된다. 동사는 제품 설치 완료 이후 모의 화물을 이용한 1차 검수 작업(Go-Live)을 수행하고, 검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고객사는 설비의 운전을 개시한다.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UAT(User Acceptance Testing) 예정일까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형태다.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자동화 사업부 주요 제품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AMR을

활용한 물류 이송 자동화와 공장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제공

로봇자동화 사업(3Q25 누적 기준 매출 비중 14.4%)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AGV/AMR을 활용한 공장자동화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공장장(GONG JANG JANG)’과 ‘데카르트(DISCARTES)’, 그리고 이를 관제하는 ACS를 공급하고 있다.

공장장(GONG JANG JANG)은 AMR과 협동로봇을 합쳐 놓은 모바일 매니퓰레이터(Mobile Manipulator) 형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의해 인증에 필요한 안전센서 및 전장부품을 적용하고 작업장 안전 인증제도 획득에 최적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데카르트(DISCARTES)**는 AMR과 컨베이어를 합친 솔루션이다. 가변성이 뛰어나 다품종 LOT 단위 생산 라인 등에 적합하다. 데카르트는 자체 개발한 제어 프로그램, 비전/변위센서를 이용해 +- 5mm 이내의 반복 정밀도를 구현한다. 또한 데카르트는 동일시간 100대 이상의 군집 제어가 동시에 가능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상품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ACS(Automated Control System)**는 AGV/AMR 관리 및 제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웹 서버 기반이므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I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또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형태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춘 설계를 수행한 이후 외주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제작하고, 조립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한다.

동사 제품은 경쟁사와 달리 전방향 이동이 가능한 메카닉 휠을 적용해 도킹 속도와 정밀도를 높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유·무선 충전 방식으로는 24시간 운영이 어려웠던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해, 무정전 배터리 자동교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고안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시간 동안 발생하던 비가동 문제를 해소하고, AMR의 24시간 연속 가동을 가능하게 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개선했다. 더불어 ACS와 임베디드 주행 시스템을 내재화해 공급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주로 표준 플랫폼 기반의 범용 AMR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동사의 경우 표준화된 구조 위에 자체 기술을 적용한 고도화된 AMR을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평가된다.

티엑스알로보틱스 AMR 제품 구조도 및 라인업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율주행로봇 기술력 비교

	TXR ROBOTICS	S사	T사	Z사
구동 방식	메카닉 휠 (전 방향 이동)	일반(전, 후, 회전) 퀴드(전 방향 이동 -도킹 정밀도 낮음)	일반 (전, 후, 회전)	일반 (전, 후, 회전)
도킹 정밀도 (속도)	±5~10mm (~5초)	±5~20mm (~10초)	±5~20mm (~10초)	±5~20mm (~10초)
무정전 자동 배터리 교체	가능	없음	없음	없음
기반 플랫폼	ROS2 (보안 및 확장성)	ROS ²⁾	ROS	미사용
Advanced ACS ¹⁾	전체 가능	일부 가능	일부 가능	일부 가능

1)Advanced ACS: 승강기, 자동문, OPC서버, 상위 시스템 연동

2)ROS(Robot Operation System): 로봇 운영체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메카닉 휠 기술 국내 최초 상용화	AI기반 장애물 인지 시스템	다양한 설비 연결 플랫폼
-----------------------	--------------------	------------------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AGV/AMR 제어 및 주행시스템

AMR 제어 시스템	임베디드 주행 시스템
100대 이상의 AMR 제어 및 운영 - AMR 최적 할당 및 이동 경로 생성 - 지능형 반송 스케줄링 - 사용자 맞춤 시각적 통계 정보	- 사용자 친화적 UI/UX 및 편리한 자가 점검 - AMR 상태 및 작업 정보 모니터링 - 주행 중 상태 및 알람 이벤트 기록 - 실시간 로그 기록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소방·재난·청소 등 서비스 로봇
포트폴리오 확대와 공공 시범사업
기반 검증을 통한 신사업 모색 중**

또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소방/재난 대응/청소 등 서비스용 로봇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방·재난 대응 로봇 분야의 경우 소화로봇, 배연로봇, 산불 방재로봇,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 배수로봇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소화·배연로봇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원격 소화 및 연기 배출 기능을 수행하며, 산불 방재로봇은 식생 제거와 방화선 구축을 통해 산불 확산을 차단한다. 배수로봇은 홍수·침수 현장에서 신속한 배수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은 AI 카메라와 로봇 제어 시스템(RCS)을 연동해 자율주행 기반 초기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공공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민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초기에는 공공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검증과 레퍼런스 축적에 집중하고, 이후 지자체·산업단지·특수시설 등 민간 적용처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으로는 우선 동남아시아 공략을 예고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은 화재 안전 수요가 높고 한국과 유사한 환경이 많아 솔루션 현지화와 적용이 용이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미·유럽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소방·재난 대응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티엑스알로보틱스 서비스로봇 신사업 진출 제품 및 계획

GUO XING MOU 및 독점 판매 계약 ('24년)	 소화 로봇	 배연 로봇
Pudu Robotics 에이전트 계약 ('25년 예정)	 청소 로봇	Sparkoz 사업 협력 ('25년 예정)  청소 로봇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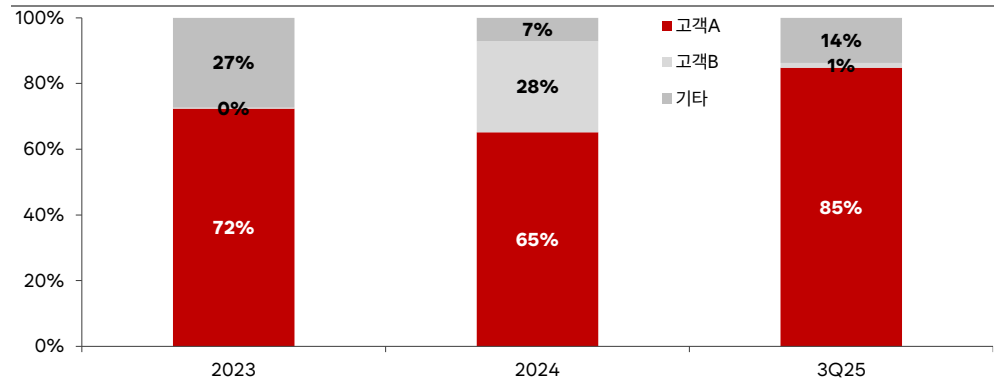
3 주요 고객사 및 경쟁사

**물류자동화 사업부 주요 고객사는
이커머스 및 물류 기업,
로봇자동화 사업부 주요 고객사는
에코프로HN, 퍼시스 등**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주요 고객사로는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이 있다. 주요 경쟁사로는 비상장사인 보우시스템과 우양정공 등이 있다. 동사는 소터 및 소터 시스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언급한 두 경쟁사의 매출은 대부분 컨베이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프로젝트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LG CNS, 현대무비스 등과 같은 대형 SI(System Integrator,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여러 제조사의 장비와 기술을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 기업들과도 경쟁하고 있다.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주요 고객사는 에코프로 그룹의 특수차세대 신소재 개발 양산 특화 기업인 에코프로HN, 국내 1위 오피스 가구 기업이자 브랜드 일룸으로 알려진 퍼시스, 제철/철강 등 내화물 업체인 조선내화 등이 있다. 동일 산업을 영위하는 경쟁 상장사로는 티로보틱스, 씨메스 등 국내외 AGV/AMR 및 물류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로봇 기업이다.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 추이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4 주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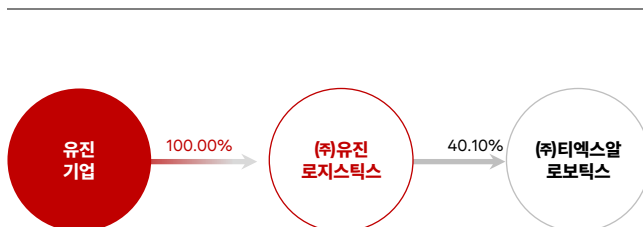
3Q25말 기준

티엑스알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주)유진로지스틱스로,
지분 40.10%를 보유

3Q25말 기준 티엑스알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주)유진로지스틱스로, 지분 40.10%를 보유 중이다. (주)유진로지스틱스는 (주)유진기업의 완전 자회사로 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유진로지스틱스의 2024년 매출액은 2,132억 원으로, 화물운송 81.9%, 용역 11.9%, 건자재판매 6.2%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였다. 로지테크홀딩스(유)는 1H25말 기준 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유진PE가 운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펀드인 유진토르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이다. 5% 이상 주요 주주인 박종현 전무(지분율 9.90% 보유)는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모태인 로탈의 대표이사 출신으로, 로탈 매각과 합병 과정에서 보유 중이던 로탈 지분 중 일부에 대한 양도 대가를 동사 지분으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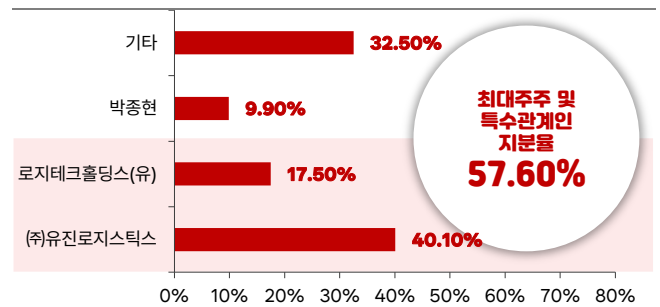
티엑스알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인 엄인섭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산업시스템정보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물류/자동화 분야 전문가다. 엄대표는 한진물류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2011.07~2013.11)하며, 터미널 자동화·3PL·택배·항공 화물 RM 등 물류 전반의 시뮬레이션·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삼성SDS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글로벌 물류센터 자동화, 2차전자·디스플레이·MLCC 등 제조 물류 자동화 구축, 그리고 AMR·제어시스템 기획·총괄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총괄했다(2013.12~2024.02). 이후 원익로보틱스 전무로 근무(2024.03~2024.07)하며 로봇사업 관련 경험을 확장하였고, 현재 티엑스알로보틱스 대표이사로서 조직의 기술·사업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유진그룹 계열 지분도



주: 3Q25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주주 구성



주: 3Q25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물류자동화 산업 현황

풀필먼트 서비스 중요성 증대

→ 물류자동화 CAPEX 확대 전망

이커머스 기업의 풀필먼트(통합 물류관리) 서비스 중요성 증대에 따른 물류자동화 CAPEX 확대가 전망된다. 참고로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기능을 운송·보관·하역부터 분류·포장·가공 등 부가가치 업무, 그리고 자동화·정보화·공동화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풀필먼트 센터, 디스트리뷰션 센터, 배송 센터 등 다양하게 지칭되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정보화·자동화를 기반으로 화물의 입·출고, 보관, 처리,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물류센터(Logistics Center)로 통일해 사용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급속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했음에도, 물류자동화 CAPEX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커머스 플랫폼 간 물류 속도와 신뢰성 경쟁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이커머스 고객들에게 신선배송, 익일배송은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고객들의 눈높이 충족을 위한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 투자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글로벌 참고 자동화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반드시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소터/피킹/포장 장비 등을 사용하는 창고도 전체 창고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연구센터).

실제로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빠른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기 다른 풀필먼트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자체 풀필먼트와 직매입 기반의 물류망을 통해 가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은 3PL(제3자 물류) 및 파트너사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한다. 컬리는 새벽배송 특화 운영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배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풀필먼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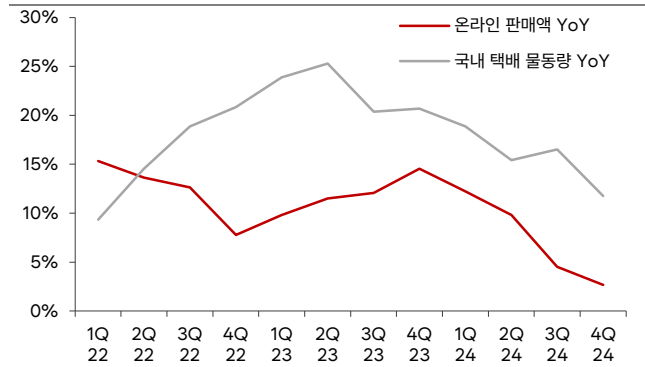
플랫폼	배송 속도
쿠팡	- 로켓와우: 당일 배송 또는 익일 오전 도착 - 로켓배송: 자정 이전 주문 시 다음 날 도착 - 로켓 해외배송: 3일
네이버	- 보장 배송(전체 GMV의 약 10%): 당일 / 익일 - 비보장 배송: 1~2 일
컬리	- 새벽배송: 밤 11시까지 주문 시 다음 날 오전 7시 도착 - 익일배송: 밤 11시까지 주문 시 다음 날 도착
G마켓	- 스타 배송: 밤 8시까지 주문 시 다음 날 도착 - 일반 배송: 1~3 일
11번가	- 슈팅배송: 자정 이전 주문 시 다음 날 도착 - 일반 배송: 1~2 일
알리익스프레스	- K-브랜드: 1~3 일 - 해외직구 상품: 3 일 이상

자료: 각 사, 언론종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둘째, 국내 물동량이 정체되면서 주요 물류 기업 실적 또한 횡보하고 있어, 국내 물류 기업들의 이익 개선을 위해서는 원가 절감 및 운영 효율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이커머스 판매액 및 택배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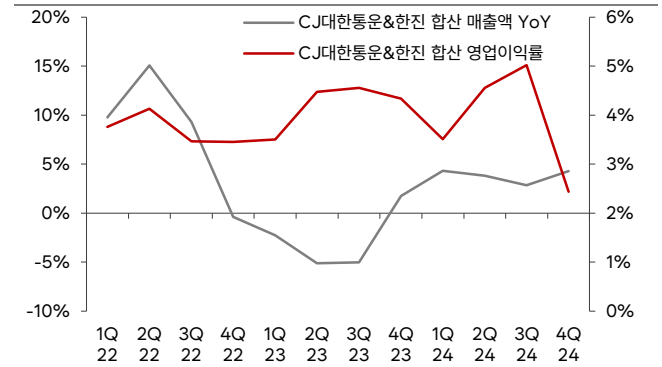
동량 YoY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및 한진의 합산 매출액 성장을 또한 횡보하고 있다. 즉, 수요 증가에 기반한 외형 확장이 어려워지면서, 물류기업의 이익 개선은 비용 구조 혁신과 자동화 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분기별 국내 이커머스 판매액 및 택배 물동량 YoY 추이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국내 주요 물류기업 합산 매출액 YoY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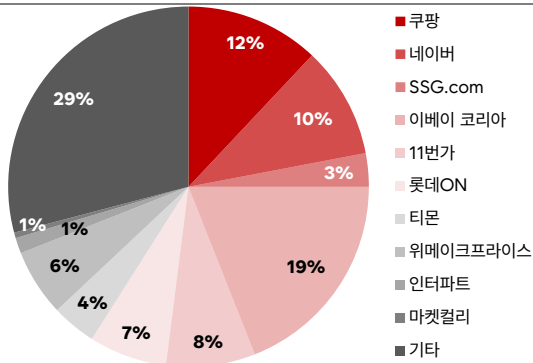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마지막으로, 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은 기업들의 물류자동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4년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리스크와 노무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도입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노동쟁의 발생시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고 파업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주요 제조-물류 기업들은 노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설비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휴머노이드와 달리, 물류자동화 로봇은 즉시 도입 가능하고 ROI 실현 시기가 빠르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 물류센터의 자동화율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무르고, 인건비·이직률 상승과 야간노동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G2P(Goods-to-Person), AMR, 자동분류·집품 시스템 등 단기적인 ROI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의향이 더욱 높아지는 흐름이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의 노동구조 안정성 확보 요구를 자극하며, 물류센터 중심의 실행 가능한 자동화 수요를 선제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이커머스 산업 재편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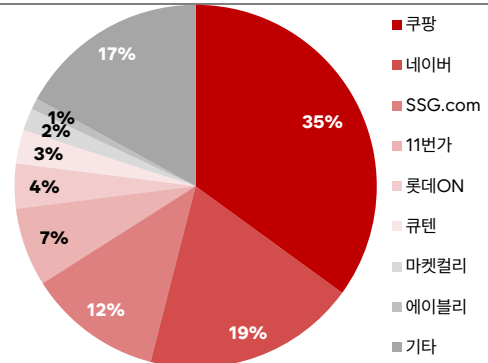
한편, 국내 이커머스 산업은 쿠팡, 네이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쿠팡과 네이버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합산 점유율은 2019년 22%에서 2024년 54%로 증가했다. 쿠팡 FLC(풀필먼트서비스 로켓 그로스, 중소상공인들의 로켓배송을 돕는 서비스) 판매자들은 FLC 가입 이후 90일 이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의 배송 보장 판매자들은 2년 내 167%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2019년 GMV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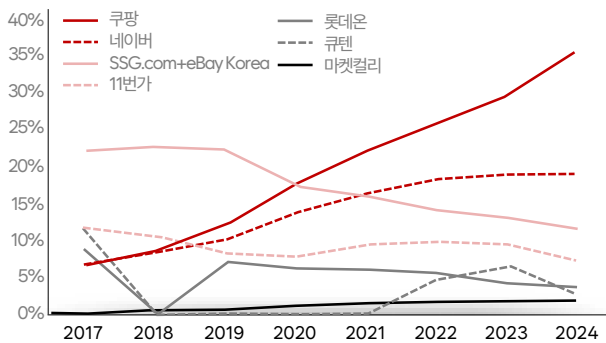
주: GMV(Gross Merchandise Volume)는 총상품거래액을 의미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GMV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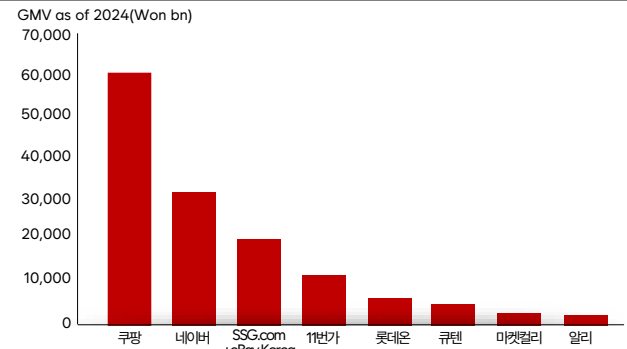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이커머스 기업 GMV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기업별 GMV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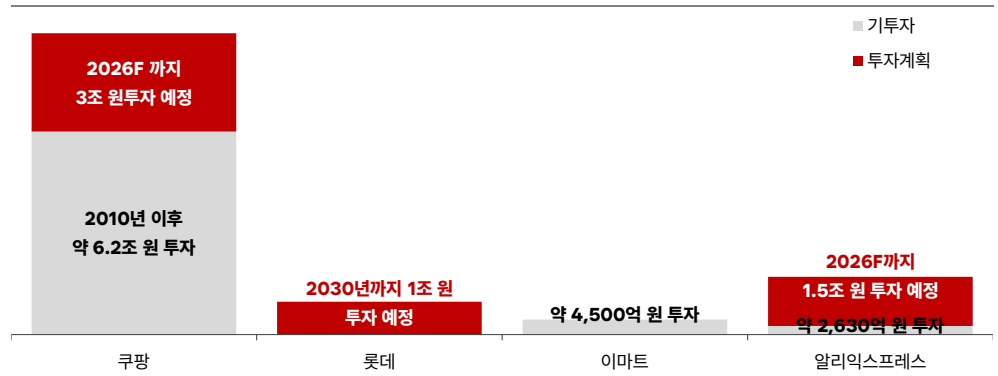
국내 물류 고객사의

CAPEX 강도 비교

이러한 상황 속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쿠팡을 추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롯데쇼핑(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 운영)은 2021년까지 물류센터/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으나, 2022년 11월 영국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물류 구축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SSG.COM의 이마트는 2019년 11개 물류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3개 물류센터 건설에 약 4,500억 원을 지출했다. 현재 물류 센터는 CJ물류로 점진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실상 물류 분야 직접 경쟁에서는 사실상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쿠팡은 장기적인 CAPEX 투자로 익일배송/새벽배송 커버리지를 확대했고, 주문량과 빈도수를 늘려 물류 고정 비용에 대한 레버리지를 창출했기에 최소 주문 금액 없는 무료 배송이 가능했다. 즉, 쿠팡의 익일 배송 서비스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CAPEX 투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국내 경쟁사들이 동일한 수준의 배송 역량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투자 집행 계획



자료: 각 사,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향후 물류 관련 전략

기업	핵심 변화 사항	풀필먼트
쿠팡	- 명품 뷰티, 프리미엄 그로서리 등 상품 카테고리 확대 - 로켓배송 커버리지를 기존 70% → 2026년 88%로 확대하기 위해 물류망 확충 - FLC(풀필먼트) 입점 판매자 수 확대	CLS(Coupage Logistics Services)를 통해 전체 물류 서비스 제공
네이버	2025년 3월 12일 커머스 전용 앱(네이버플러스 스토어)출시 - 당일배송·익일배송·예약배송 등 배송 옵션 확대 - 플러스 멤버십 대상 무료 반품 제공 - AI 추천 시스템 도입 2025년 6월 2일부터 수수료 약 1%p 인상 예정	- 네이버는 자체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음 - 물류 서비스는 NFA(Naver Fulfillment Alliance) 파트너(CJ대한통운 등)가 제공 - 보장 배송 채택률: Brandstore 약 40~50%, Smartstore는 한 자릿수
지마켓	- 국내 판매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알리바바와 합작회사(JV) 설립 - 주말 배송 서비스 도입	- 수도권 내 두 개의 풀필먼트 센터 운영 - 라스트마일 배송은 CJ 대한통운 담당
컬리	- 패션·리빙 카테고리 확장 - 새벽배송 커버리지 확대	- Kurly의 3PL 서비스는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중 - 새벽배송은 자회사 'Kurly Nextmile'이 운영 - 익일배송은 CJ대한통운이 운영
11번가	2025년 2월 22일부터 주말 당일배송 서비스 시작	3PL 서비스 'Shooting Seller' 제공 - 인천·파주·대전 내 세 개의 풀필먼트 센터 운영 - 라스트마일 배송은 한진이 담당
알리익스프레스	- K-브랜드 공급 확대 위해 이마트와 합작회사(JV) 설립 2025년 2월 1일부터 수수료 8.8% 부과	별도의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없음
SSG닷컴	당일배송·새벽배송 서비스 지역 확대	CJ대한통운과의 협업으로 물류 시스템 재정비 중

자료: 각 사,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쿠팡: 전국 물류망 확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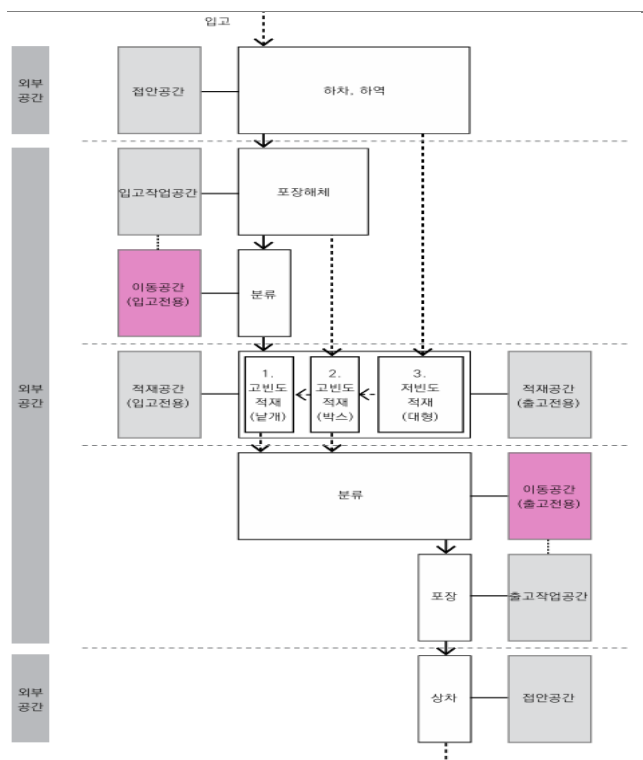
쿠팡은 지난 10여 년간 자동화 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 비중을 약 두 배 확대했음에도, 2024년 기준 전체 자동화율은 여전히 10% 초반 수준이다. 즉, 쿠팡의 물류자동화는 현재 부분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판단된다.

물류센터 내 이동공간에는 소터와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자동화가 구축되어 있으며, 적재공간 일부에는 랜덤 스토우 방식이 도입되어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 집안, 적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운반 공정은 아직 인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랜덤 스토우 방식은 보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이는 동시에 피킹 단계에서 작업자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쿠팡의 자동화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CAPEX의 상당 부분은 AI 로봇 기반

의 첨단 자동화 설비에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쿠팡은 1H25에만 7,560억 원을 자동화 설비와 인프라에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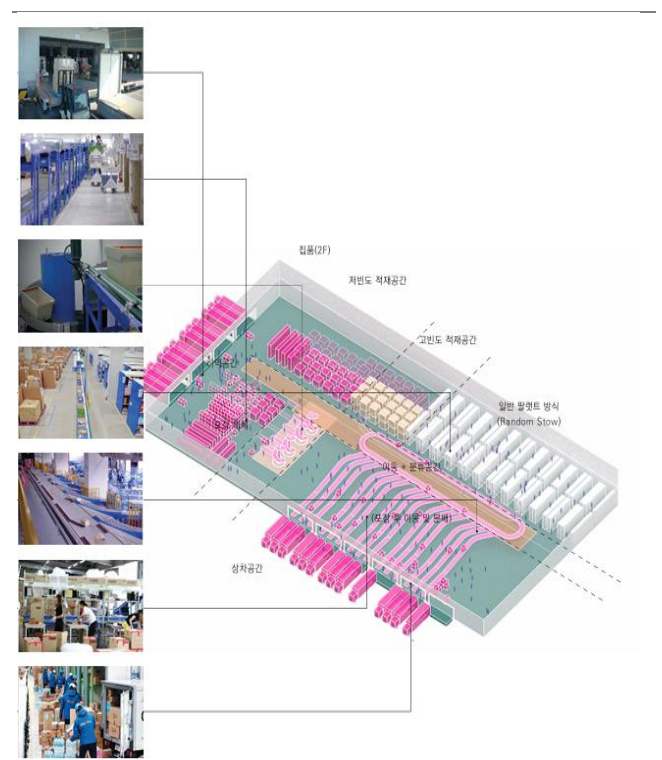
쿠팡은 현재까지 전국 30여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메인 풀필먼트 센터뿐만 아니라, 서브 허브, 배송 캠프 등 다양한 물류시설이 포함). 쿠팡은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로켓배송(익일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약 22억 달러(약 3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쿠팡의 지난 10년간 배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는 약 6.2조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로켓배송 커버리지는 약 70%로 추정되며(2025년 4월 기준 전국 260개 시군구 중 약 70%에 해당하는 182곳에서 로켓배송을 제공), 해당 투자로 국내 로켓배송 커버리지는 2026년 80%, 2027년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지역에 최소 9개의 신규 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해당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과 배송 속도 향상을 위해 자동화 기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쿠팡 물류센터 내 물류의 흐름



자료: 조용현(2020),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쿠팡 물류센터의 내부공간 현황



자료: 조용현(2020),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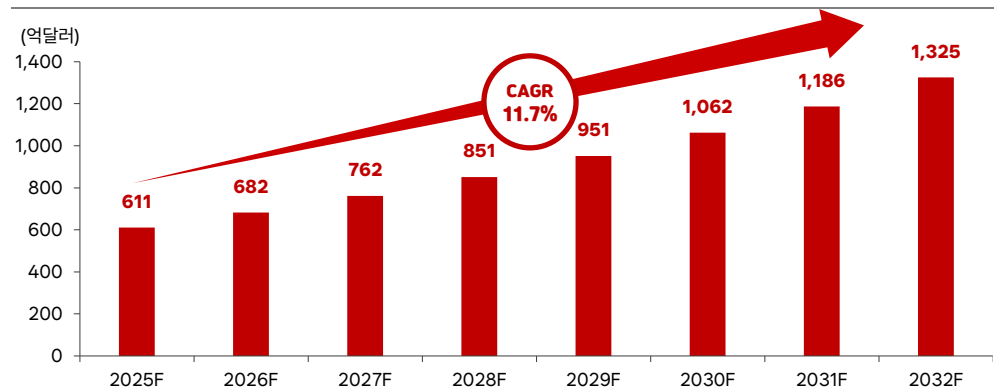
2025년 글로벌 물류자동화 시장 규모는 약 61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2년 1,325억 달러까지 연평균 11.7%로 성장할 전망

글로벌인포메이션(GI)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물류자동화 시장 규모는 약 61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2년 1,325억 달러까지 연평균 11.7%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성장 요인은 이커머스 SKU(Stock Keeping Unit) 증가, 주문 처리 속도 요구가 핵심이다. 물류센터는 상시 가동되는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GV·AMR, AS/RS, 자동분류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인건비 상승·기존 인프라의 비효율성 등이 자동화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다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기존 시설과의 통합 문제는 도입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북미와 유럽 역시 이커머스와 리테일 물류의 구조적 변화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류자동화 시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오픈프레

미스(On-Premise) 및 클라우드 기반의 WMS(창고관리시스템), TMS(운송관리시스템)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한편, 물류자동화 장비의 정밀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만, 최근 국산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2020년 기준 국내 물류자동화 장비의 국산 비중은 54%로, 2015년(46.1%)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보시스템(WMS, TMS 등) 분야에서는 국산 비중이 40%(2015년)에서 97.7%(2020년)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정부의 스마트 물류 지원 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물류자동화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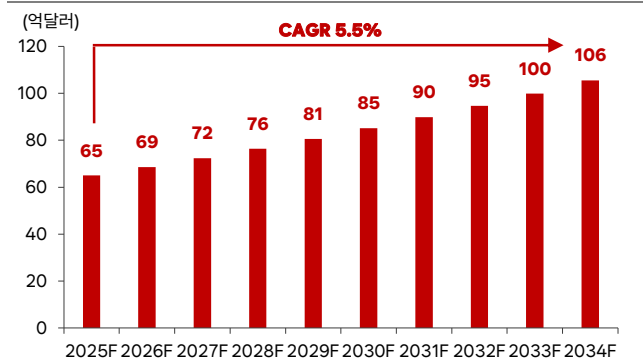


자료: GII(2025.02),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물류자동화 투자 시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인 컨베이어 시스템과 AMR 시장을 비교해보면, 컨베이어 시스템은 AMR보다 시장 규모는 크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컨베이어 시스템 시장은 2025년 약 65억 달러에서 연평균 5.5% 성장해 2034년 약 10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물류센터·제조시설·공항 등에서 고정 경로 기반의 대량 이송·분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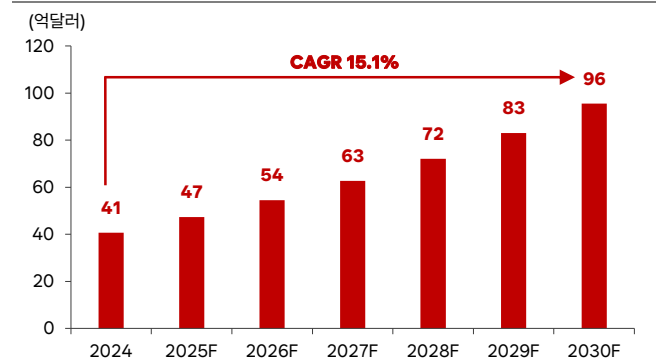
AMR 시장은 인력 대체와 유연한 공정 자동화 요구가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4년 글로벌 AMR 시장 규모는 약 4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5~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15.1%에 이른다. AMR 시장 성장은 이커머스 풀필먼트 자동화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글로벌 컨베이어 시스템 시장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2025.06),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AMR 시장 전망



자료: GrandViewResearch(2025.05),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AMR 산업 현황

글로벌 AMR 시장의 핵심

수요처는 물류자동화(29%)와

제조업(46%)

글로벌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주행 물류로봇) 시장의 핵심 수요처는 물류자동화와 제조업이다. AMR Application별로 살펴보면 제조·창고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물류자동화가 29%, 헬스케어 13%, 기타 12% 순이다. 특히 이커머스 부문의 AMR 도입은 2024년 대비 53% 증가할 전망이다(360ResearchReports). 제조업에서는 AMR을 통해 내부 물류 시간을 약 41% 단축할 수 있고, 물류창고에서는 자율물류 시스템 확대로 처리량을 53%가량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AMR 시장의 전방 산업을 제조업 중심의 스마트팩토리와 이커머스 중심의 물류자동화로 구분해 보았다. 제조 물류 부문은 공정 안전성과 정밀도가 중요하며, 이커머스 물류 부문은 피킹·이송·분류 업무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영역이다. 이커머스·창고 물류 AMR 시장은 중국 중심의 가격·규모 경쟁이 지배하는 반면, 제조 물류 AMR 시장은 유럽·일본·한국 중심의 기술·안전 기반 고부가 시장이 구축되고 있다.

제조 물류 시장 글로벌 기업 현황

제조 물류 시장은 고정밀·고신뢰성·클린룸 규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MIRA는 자동차·전자·의료기기 제조라인에서 활용되는 등 제조업용 AMR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Rockwell Automation(미국)은 2023년 산업용 로봇 기업 Clearpath Robotics 및 그 자회사 OTTO Motors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산업 자동화 포트폴리오에 AMR 기술을 통합했다. 독일의 KUKA는 산업용 로봇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KMP AMR 시리즈를 공급하며, 로봇팔·AGV·AMR을 아우르는 통합 자동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Toyota Material Handling과 Daifuku는 각각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현장에서 안정적인 설비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Omron은 PLC·센서·제어기술과 AMR을 결합해 제조라인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커머스 물류 시장 글로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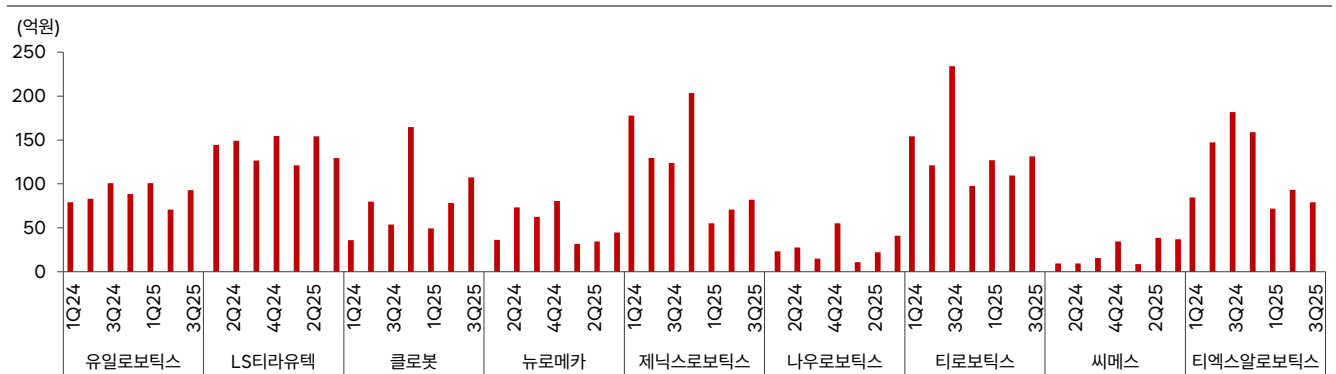
현황

이커머스 물류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Geek+는 G2P(Goods to Person) 분야 글로벌 1위로 가장 높은 시장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Quicktron은 알리바바·차이나오토를 기반으로 빠르게 규모를 확장했다. HAI Robotics는 토트리프트형 ACR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대규모 피킹 작업에서 강력한 생산성 우위를 확보했다. 미국의 Locus Robotics와 GreyOrange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플랫폼 운영 역량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DHL·UPS 등 주요 글로벌 물류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커머스용 AMR 시장은 가격 경쟁력, 대규모 구축 경험, 빠른 기술 개선 속도를 기반으로 중국 기업 중심의 경쟁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AMR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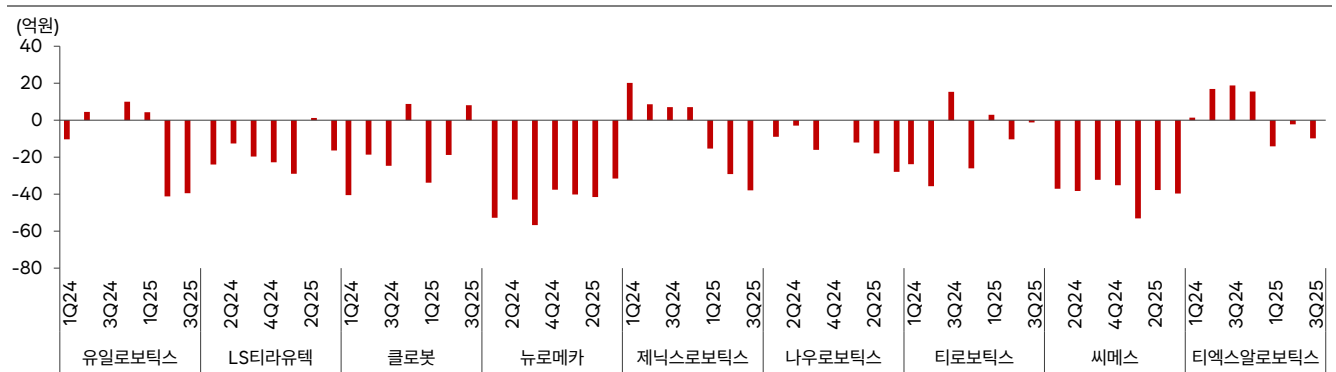
국내 AMR 시장은 2차전지·반도체·자동차 등 고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조용 AMR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 3사 라인의 클린룸 운반, 반도체 공정의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 웨이퍼 캐리어 박스)·케미컬 이송, 자동차 조립라인의 중량물 이동 등 산업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티로보틱스, LSE티라유텍, 유일로보틱스, 티엑스알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로봇 기업들 또한 주요 제조업 기반의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AMR 기업은 공정별 요구사항을 상세히 반영한 최적화된 AMR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외산 기술을 단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특화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물류로봇 기업의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물류로봇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SE티라유텍과 티로보틱스의 3Q25 매출액은 각 129억 원(2.2% YoY), 131억 원(44.0% YoY)을 기록했다. LSE티라유텍은 LS일렉트릭 계열의 스마트팩토리·물류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MES·WMS·PLC 제어·로봇·공정 자동화를 통합 공급하는 국내 대표 SI 기반 자동화 기업이다. 또한 LS일렉트릭은 최근 엔비디아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하며 사업 확장 기대를 높이고 있다. 티로보틱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자동화에서 출발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정밀 AMR과 진공 로봇 등 고난도 제조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티로보틱스의 매출 증가 배경으로는 AMR의 북미 주요 자동차 부품사 대상의 수주와 국방분야 물류로봇, 반도체 공정 분야 수주 등이 시현된 결과다. 한편, LSE티라유텍과 티로보틱스의 3Q25 영업이익은 -16.3억 원(적자축소 YoY), -1.3억 원(적자전환 YoY)을 기록했다.

국내 AMR 기업들도 제조업 중심의 수주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일부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분기별로 흑자 전환을 시현했다. 대표적으로 클로봇은 3Q25 매출액, 영업이익 각 107억 원(98.1% YoY), 8억 원(흑자전환 YoY)을 기록했다. 클로봇은 RCS·FMS 등 플릿 운영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하드웨어 대비 높은 마진의 솔루션 매출 비중을 확보했고, 대형 고객사 대상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며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AMR 시장은 기술·가격·솔루션 경쟁이 복합적으로 얹힌 고경쟁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이커머스 자동화 수요 확대와 인건비 상승, ESG 기반 효율화 요구가 맞물리며 아마존과 같은 내재화형 로봇 기업, Zebra·Siemens 등 SI 업체, AI 기반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플레이어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둘째, 경쟁의 중심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했다. SLAM, AI 기반 경로 최적화, FMS·클라우드 연동 기술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였고, ROS 기반 오픈소스 확산으로 기술 장벽이 낮아지며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AMR은 단품 공급이 아닌 물류센터 전체 시스템 통합을 전제로 한다. AMR·WMS/WCS·ERP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제공하는 역량이 중요해졌으며, 현장 커스터마이징, 시운전, A/S까지 포함한 종합 엔지니어링 능력이 기업 간 성과를 좌우하고 있다.



투자포인트

주요 이커머스 고객사 Capex 확대에 따른 물류자동화 사업부 매출 성장 전망

물류자동화 시스템 설비는
기술력과 납품 레퍼런스가
진입장벽으로 작용

주요 이커머스 고객사의 풀필먼트 CAPEX 확대에 따른 동사 물류자동화 사업부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 설비 도입은 대규모 투자 집행이 수반되고, 시스템 오작동은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기술력 및 납품 레퍼런스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술력:

정밀한 분류 정확도, 높은 처리

효율, 턴키 공급 CS 대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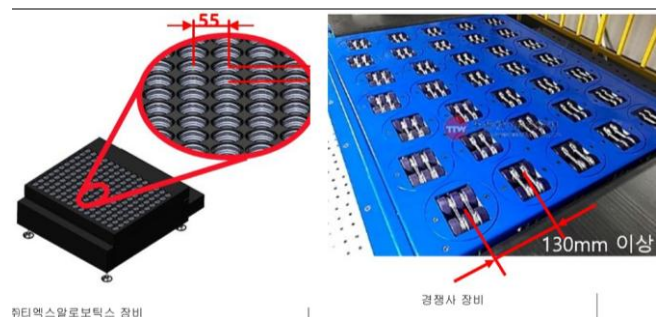
동사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오분류율이 낮다. 휠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 작은 화물을 정교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동사 휠소터의 휠 롤러 피치(휠 간의 간격)는 55mm로 현재 업계 최소 규격을 구현했다. 주요 경쟁사 휠 롤러 피치는 130mm이상으로 파악된다. 둘째, 높은 화물 처리 성능이다. 동사는 경쟁사 대비 시간당 최대 약 2,000개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경쟁사 제품의 경우 2-way 형식의 분류만 가능하나, 동사는 최대 6-way 구분 방향으로 화물 배출이 가능하다. 동사의 휠소터는 롤러나 컨베이어 사이에 장착하기 쉽도록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레이아웃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한, 동사는 SMS 등 상위 제어 시스템까지 자체 제공함으로써 설계·구축·운영을 통합한 턴키 납품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수도권·전주·부산·제주에 걸친 4개 CS 거점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지보수 대응력 또한 우수하다.

티엑스알로보틱스 휠소터 기술력

구분	티엑스알로보틱스	경쟁사 A	경쟁사 B
처리중량	100g~30kg	200g~20kg	400g~20kg
특징	높은 이송속도(2.0m/s) 넓은 배출각도(40~90도)	가격 경쟁력	조립 용이성
처리성능	6,000~8,000 개/시간	3,000 개/시간	5,000 개/시간
처리가능 화물	소형/대형박스, 폴리백	대형박스	대형박스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휠 롤러 피치는 55mm로 업계 최소 규격 구현



티엑스알로보틱스 장비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경쟁사 장비

쿠팡, CJ대한통운, Lazada

Express 등 국내외 물류자동화

납품 레퍼런스 보유

상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물류자동화 구축에 있어 다양한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쿠팡 향으로 2024년말 기준 24개의 풀필먼트 센터와 27개의 캠프(최종 배송을 위한 소규모 물류 거점) 턴키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 전체 휠소터의 70%를 납품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쿠팡의 오분류율 허용 기준이 0.1%인 점을 감안하면, 동사 휠소터 납품 레퍼런스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 우편집중국 턴키, CJ대한통운 9개 사이트 턴키, 칠레 7개 사이트 턴키, 동남아시아 Lazada Express 7개 사이트 사이트 수출 등 국내외 턴키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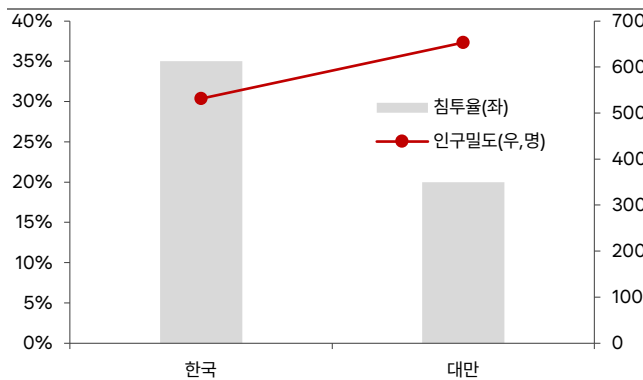
쿠팡 대만 사업 관련 현황

물류자동화 사업부 주요 고객사인 쿠팡은 국내에서의 물류 투자 성장 공식을 대만 사업에 대입해 확장할 계획이다. 2Q25 쿠팡의 대만 매출은 전분기 대비 54% 증가하고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쿠팡 경영진은 “대만의 성장 궤적이 한국 초기와 유사하다”면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기존(재구매) 고객의 지출 확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1Q25 대만에서 와우 멤버십(무료 로켓배송·30일 이내 반품 혜택)을 런칭해 고객 락인 전략을 본격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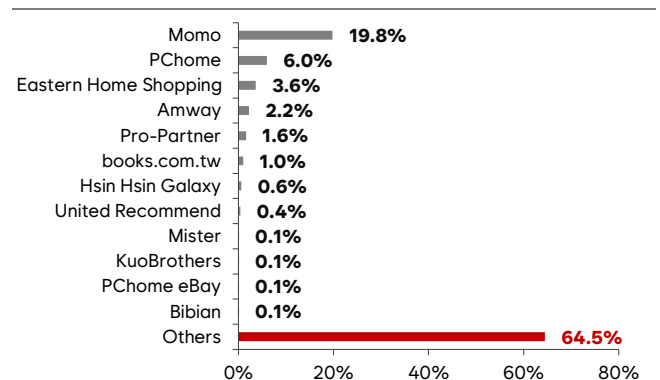
대만은 낮은 온라인 침투율, 높은 인구 밀도와 구매력 등 이커머스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대만은 인터넷 보급률이 90% 수준임에도 전체 소매 거래액 대비 이커머스 거래액 비중이 약 20% 내외로, 한국(전자상거래 침투율 약 35%) 대비 낮은 단계에 있다. 물류·수요 조건도 유리하다. 대만의 인구밀도는 km^2 당 673명으로 한국(약 515명)보다 높아 배송 반경의 효율이 높다. 실제로 쿠팡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타오위안 공항 인근에 풀필먼트 센터 2곳을 배치해 직구·직매입 물량의 리드타임을 단축했다. 대만은 이커머스 경쟁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장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모모(Momo)가 2024년 시장점유율 19.8%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발 저가 C커머스 확산과 쿠팡의 로켓배송 진입 영향으로 1H25 매출이 542억 대만달러(-2% YoY)로 11년 만에 역성장했으며, 2Q25 세후 순이익도 6.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 대만의 구매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IMF에 따르면 2024년 대만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일본과 유사한 3만 달러 중후반이며,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4.3%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과 한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 및 인구밀도 비교



자료: Worldometers, 언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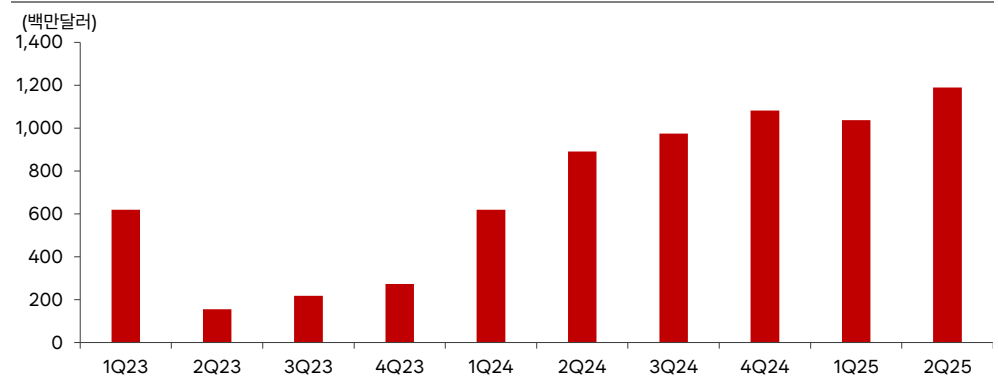
대만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 점유율



자료: Statista(2024.12),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쿠팡은 2022년 10월 대만에서 첫 풀필먼트 센터를 가동한 이후 2023년 11월 두 번째 풀필먼트 센터를 가동하고, 2025년 초 와우 멤버십을 도입했으며, 이에 맞춰 대만 북부~남부로 배송 캠프·직고용 배송인력(쿠팡 프렌즈)을 확충 중이다. 대만 정부가 쿠팡의 투자를 계속 승인하고 있으며(2024년 4월 약 6.1억 달러, 2024년 12월 누적 약 211억 달러 승인),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미 집행되고 있다. 또한 쿠팡은 대만 투자 가속화로 2025년 성장사업 손실 가이던스를 기존 6.5억~7.5억 달러 대비 9.5억 달러로 상향조정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쿠팡 신사업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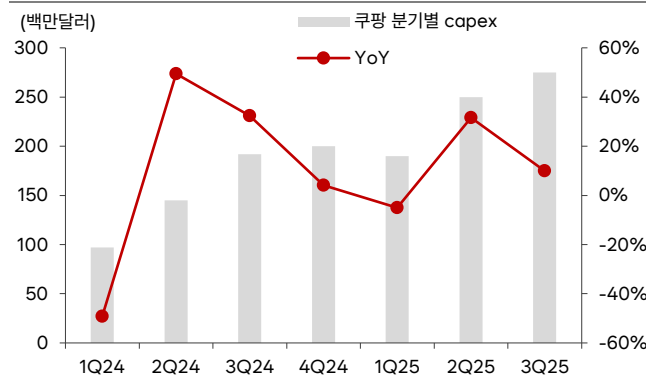


주: 신성장 사업은 대만 이커머스 사업, 명품 이커머스 파페치, 쿠팡이츠 등을 포함

자료: Coupan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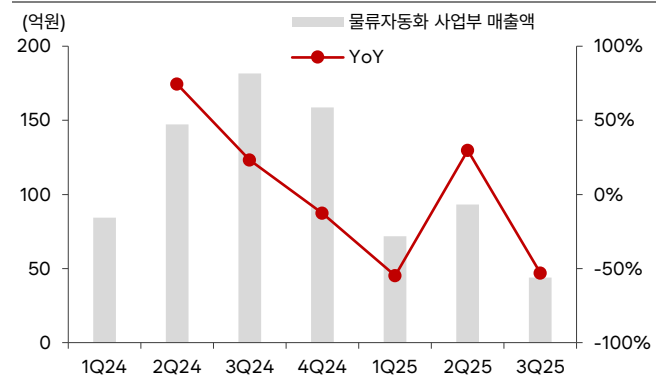
쿠팡은 자동화 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 비중을 최근 몇 년간 두 배 가까이 확대해왔으나, 2024년 기준 자동화율이 아직 10% 초반 수준에 머물러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동사는 쿠팡의 대만 이커머스 확장에 따른 물류자동화 CAPEX 수혜가 기대된다. 실제로 기존 쿠팡 대만 협력사의 셋업·CS(Customer Service) 대응이 미흡해 배송 운영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공백을 대체하여 동사는 대만 물류자동화 투자를 수주했다. 향후 2~3년간 대만 물류자동화 투자 확대는 동사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성장을 일정부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분기별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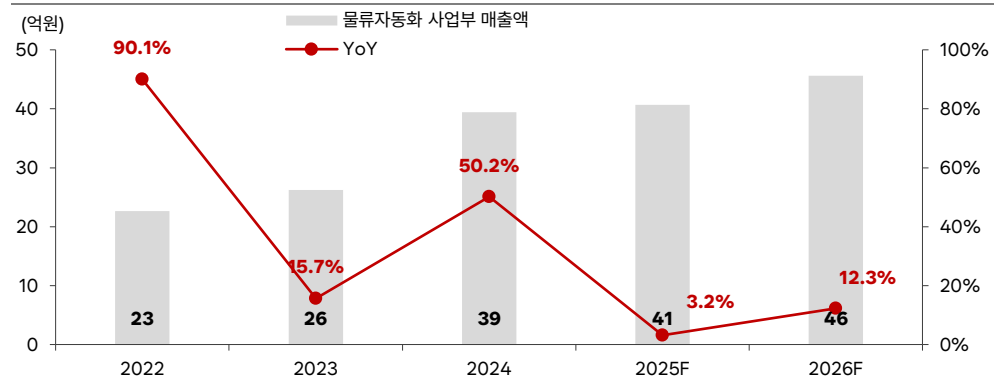
자료: Coupan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자동화 사업부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자동화 사업부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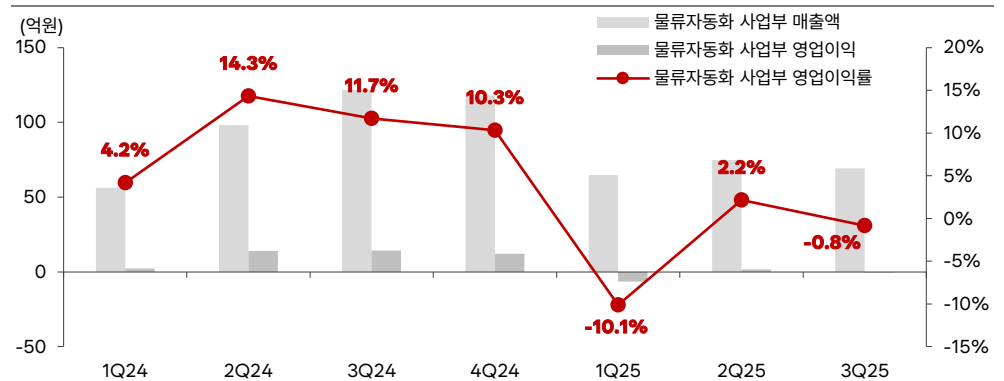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물류자동화 사업부 고객사 다변화 노력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

다만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및 대만 쿠팡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북미·아시아·유럽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유럽은 동사의 현지 법인인 프랑스 ISITEC이 SI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 영업 인력 확충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쿠팡의 대만 사이트 레퍼런스를 활용해 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에이전트 체계를 통해 물류자동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자동화 사업부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의 글로벌 성장 전략 및 계획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MR 신규 수주와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 매출 확대도 기대

2025~2026년 건설 인프라
제조기업형 수주 매출 인식 예정

동사는 이커머스를 비롯해 제조, 서비스, 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MR 적용 기회를 발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그룹, 남부 레퍼런스 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국내 건설·인프라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주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장기적으로 동사는 지능형 로봇,
차세대 AMR, 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하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

동사는 지능형 로봇, 차세대 AMR, 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하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형 상품을 집어낼 수 있는 AI 기반 랜덤 피스피킹 로봇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다루는 원핸드 시스템, 정밀 조립·포장 작업까지 수행 가능한 투핸드 시스템, 그리고 AMR과 결합된 세미 휴머노이드 솔루션이 그 핵심이다. 특히 피스피킹 로봇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돼, 동사가 추진 중인 AI·비전 기반 고도화 로봇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동사는 로봇AI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능형 피스피킹, AI 기반 감지 시스템, 자동창고 솔루션 등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 시장 진입까지 고려한 장기적 비전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성장동력으로
서비스형 로봇 사업 추진 노력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중장기적으로 서비스형 로봇 사업도 타진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특수 작업을 수행하는 소방로봇·청소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 테스트를 완료했다.

소방로봇: 국내 독점 판매 및 기술
내재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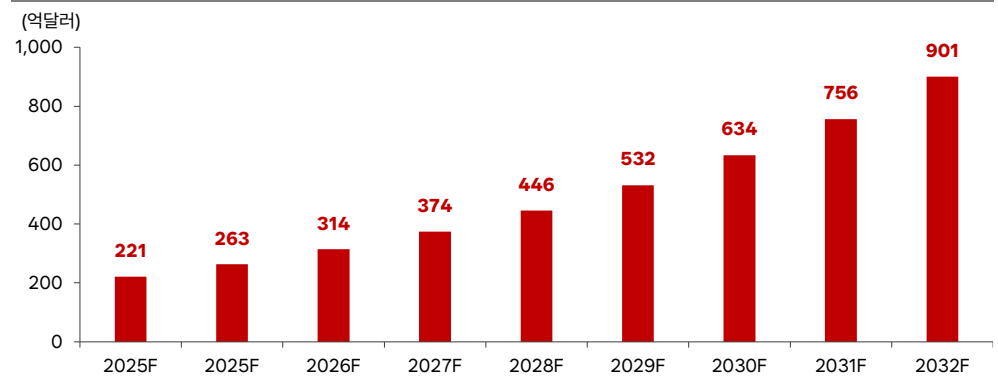
동사는 2024년 12월 중국 귀싱즈닝과 소화로봇·배연로봇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MOU)을 체결하며 재난·소방 로봇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현재 국내 라이선스 취득과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통신 프로토콜과 ACS 등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는 동사가 직접 개발하고, 귀싱즈닝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동사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을 내재화하며 향후 자율제어·관제 기술 고도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 로봇은 부산 공장 내 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용품 인증 등 규제 절차를 거쳐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로봇: 글로벌 협업 통한**시장 진입**

동사는 2023년 9월부터 청소로봇 설계·OEM 제작을 준비해 왔으나 미국·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사업 방향을 조정하고, 2025년 중국 푸두로보틱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스파코즈(Sparkoz Technology)와 MOU를 추진하며 사업 기반을 확보했다. 일부 청소로봇은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 청소 기능을 넘어 순찰·보안 기능이 결합된 복합 서비스 로봇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제품을 중심으로 대형 상업시설, 병원, 호텔 등 서비스업 시설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며, 그동안 축적한 물류자동화 기술과 로봇 제어 시스템 역량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과 기술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성장 방향: 로봇 내재화 및**무인 모빌리티 확장**

궁극적으로 동사는 AGV/AMR뿐 아니라 서비스형 로봇 사업을 통해 서비스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 공장·창고뿐 아니라 오피스, 병원, 호텔 등 다양한 환경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봇 기술이 내재화되고 고도화되는 시점에는, 야외 기동 및 엘리베이터 층간 이동 등 라스트마일 물류 및 무인 모빌리티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다만,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초기 연구개발비가 높고 경쟁 강도가 심해 단기적인 실적 기여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 시장 전망

자료: FortuneBusiness Insight(2025.11),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Review: 가파른 외형 성장 대비 아쉬운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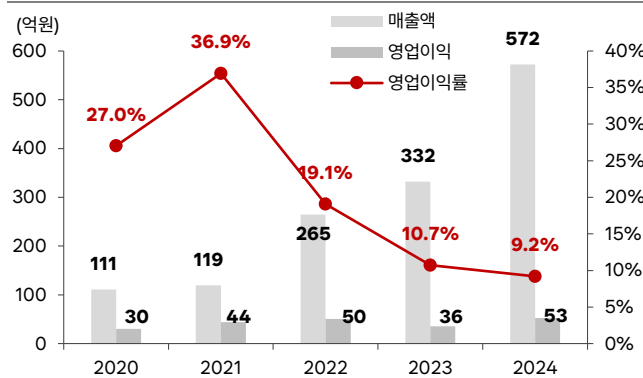
**2024년 매출 572억 원(+72.4% YoY),
영업이익 53억 원(+48.2% YoY)을 기록**

티엑스알로보틱스는 2024년 매출 572억 원(+72.4% YoY), 영업이익 53억 원(+48.2% YoY)을 기록하며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265억 원(+121.8% YoY), 2023년 332억 원(+25.4% YoY), 2024년 57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은 로탈을 흡수합병해 사업부화하고, 예코프로HN향 매출을 인식하며 로봇자동화 매출 178억 원(+155.7% YoY)을 시현했다.

가파른 외형 성장 대비 매출원가 부담은 구조적으로 확대되었다. 로탈 인수 이후 로봇자동화 부문의 원가 구조가 전체 원가율 상승을 초래했고, 2023년 직접 제작 중심 구조에서 일부 프로젝트의 작업 기간이 지연되며 원가 과투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내부적으로는 설계만 수행하고 제작·전기 공정은 외부 하도급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로, 향후 공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원가 개선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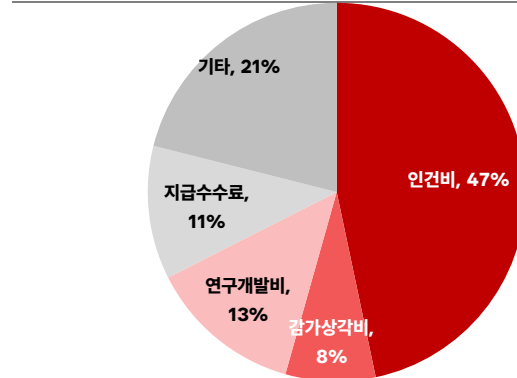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2022년 50억 원, 2023년 36억 원, 2024년 53억 원을 보였다. 외형 성장에 따른 판매관리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2023년 11.5% → 2024년 9.2%)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5%p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매출 성장폭에 비해 수익성 개선 정도는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매출총이익 감소와 판관비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 비용을 성격별로 구체화해보면, 외주가공비 항목은 2024년 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130억 원) 크게 증가했다. 또한, 종업원급여는 44억 원으로 전년 34억 원 대비 약 29.4% 증가했다. 또한, 지급 수수료는 전년 6억 원 대비 2배 증가한 1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로탈 합병 과정에서의 PMI(Post Merger Integration) 비용과 자문 비용이 일회성으로 증가한 데 기인했다.

티엑스알로보틱스 연도별 실적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중



주: 3Q25 누적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성장통 겪을 2025년, 2026년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468억 원(-18.3% YoY),
-12억 원(적전 YoY)을 예상**

티엑스알로보틱스의 2025F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468억 원(-18.3% YoY), -12억 원(적자전환 YoY)을 예상한다. 3Q25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244억 원(-41.0% YoY), -26억 원(적자전환 YoY)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3분기 누적 414억 원 대비 41.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자동화 사업부는 턴키 프로젝트 지연으로 매출 인식이 순연됨에 따라 209억 원(-24.4% YoY),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전방 산업 투자 축소에 따라 누적 매출액 35억 원(-74.5% YoY)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37억 원) 대비 크게 악화되었다. 연구개발 인력 증가 및 외주가 공비 등 인건비 부담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1) 종업원 급여가 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45억 원)대비 증가했으며, 2) 운반비는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 원 증가했다.

2025F 사업부문별 전망을 보면, 물류자동화 매출은 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세를 기대하는 것은 연초 이연된 대만 프로젝트가 4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로봇자동화 매출은 전방 산업 투자 위축을 반영해 전년 대비 65.7% 감소한 61억 원으로 전망된다.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업계 특성이 있어, 연말 수주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영업이익은 연간 -12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년 대비 외형이 축소되고, 인원확충, 기술 개발, 제품 관련 투자 지속으로 인한 마케팅 및 광고 선전비가 증가하는 점,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2026F 매출액, 영업이익은 547억 원(+17.0% YoY), -9억 원(적자지속 YoY)을 예상한다.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대만 사이트 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56억 원으로 추정했다.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국내 종합부품 제조사형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48.6% 성장한 91억 원으로 추정했다. 영업이익은 1) 물류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고객사 다변화를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2)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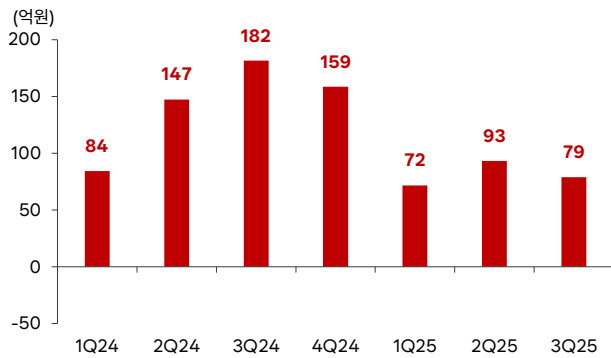
티엑스알로보틱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9	265	332	572	468	547
물류자동화	119	227	262	394	407	456
로봇자동화	0	37	70	178	61	91
영업이익	44	50	36	53	-12	-9
지배주주순이익	41	33	22	38	-7	-3
YoY 증감률						
매출액	75	121.8	25.4	72.4	-18.3	17.0
영업이익	470	14.5	-29.6	48.2	-122.9	-27.3
지배주주순이익	64.4	-20.1	-32.0	72.5	-119.2	-11.1
영업이익률	36.9	19.1	10.7	9.2	-2.6	-1.6
지배주주순이익률	34.3	12.4	6.7	6.7	-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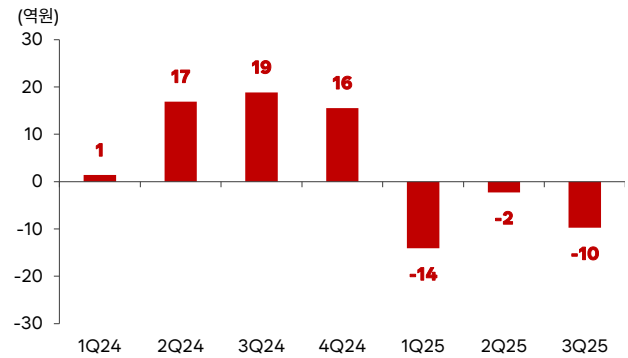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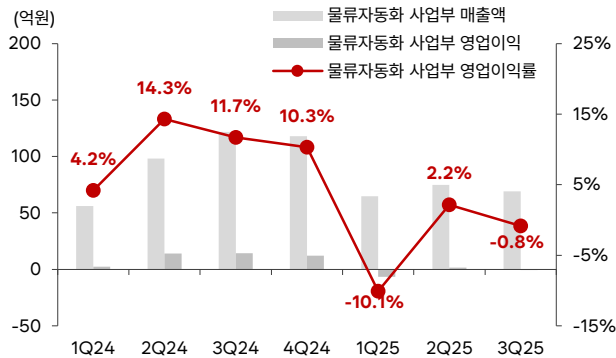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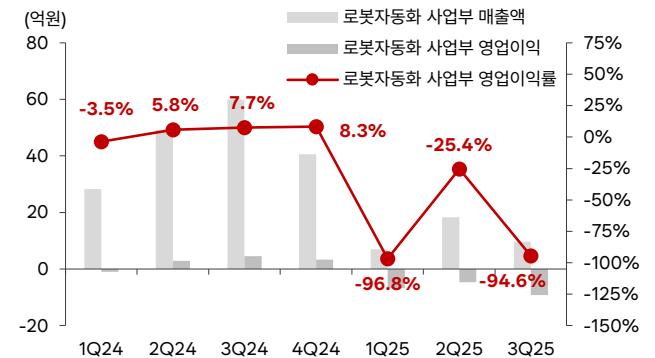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자동화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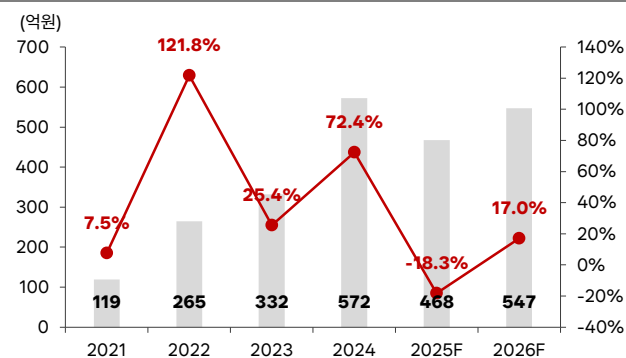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로봇자동화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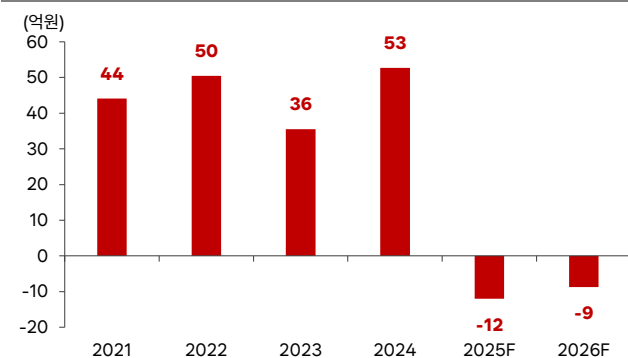
자료: 티엑스알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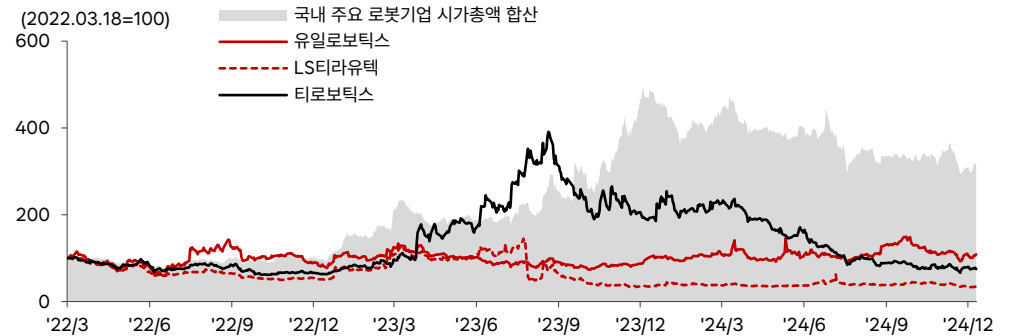
Valuation

1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밸류에이션 점검: 정책 모멘텀에서 실적 기반 리레이팅을 기대하며

**2022년~2024년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의 주가는
국내 로보틱스 시가총액을
하회하는 수준**

2022년~2024년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유일로보틱스, LSE티라유텍, 티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휴머노이드/협동로봇 중심의 로봇 섹터 밸류에이션 확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의 2022~2024년 주가는 전체 국내 주요 로봇 섹터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 프리미엄을 주도한 휴머노이드/협동로봇과 달리 전통 제조/물류 CAPEX에 연동되는 B2B 장비·SI 비중이 높아 경기/투자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의 매출 구조로 실적 변동성이 컸고, 중국 AMR 및 국내 SI와의 경쟁으로 장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 하방 압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주가 추이(2022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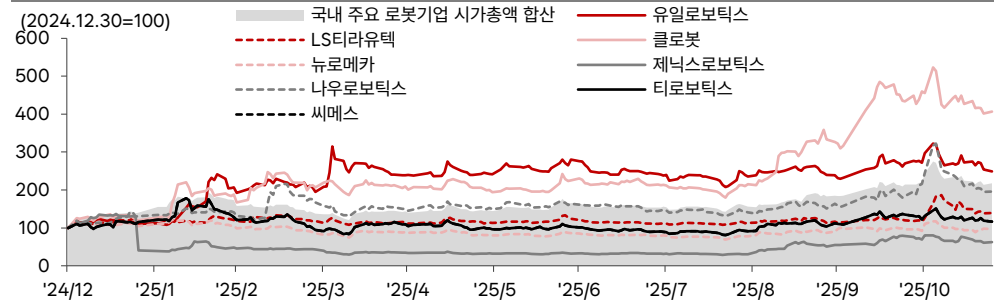


주: 국내 주요 로봇기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로보스타, LSE티라유텍,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뉴로메카, 클로봇, 씨메스, 제닉스로보틱스, 티로보틱스, 큐렉스, 고영, 엔젤로보틱스, 파엔에스로보틱스,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의 주가는 시장 전반의
모멘텀에 따라 연동하는 모습**

2025년 국내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유일로보틱스, LSE티라유텍, 티로보틱스 및 신규 상장 5개사)의 주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 규제 강화로 자동화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제조업 전반에서 스마트팩토리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로봇·물류자동화 업종 전체에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24년까지 박스권에 머물렀던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의 주가가 2025년 들어 동조화되는 패턴을 보이며 우상향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주가 추이(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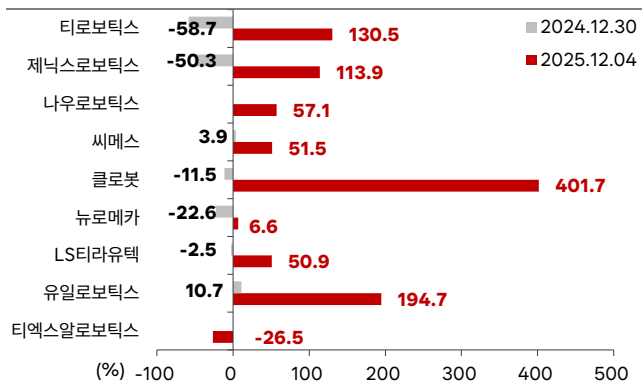


주: 국내 주요 로봇기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로보스타, LSE티라유텍,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뉴로메카, 클로봇, 씨메스, 티엑스알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제닉스로보틱스, 티로보틱스, 고영, 엔젤로보틱스, 파엔에스로보틱스,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한편,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개별 종목별로 옥석이 가려지는 모습이었다. 제조/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축적해 온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은 정책 수혜와 업황 회복의 효과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며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기록했고, 소프트웨어 중심 매출을 확대하는 기업은 높은 성장성 기대를 기반으로 프리미엄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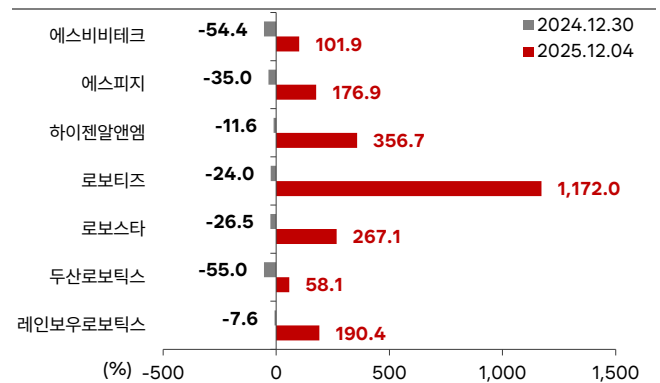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클로봇, 유일로보틱스의 2025년 주가 상승률은 각각 401.7%, 194.7%로 가장 높았는데, 업황 둔화로 부진했던 2022~2023년 이후, 외형 성장 흐름이 확인되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진 모습이었다. 클로봇의 경우 대형 제조사 및 글로벌 물류 고객사 대상으로 시스템 통합 없이 플릿 운영 SW·AI 최적화 솔루션 판매 비중이 확대되며 3Q25 흑자전환했다. 유일로보틱스는 자동차·2차전지 등 제조업용 로봇 자동화 수요가 회복되며 수주·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반등한 요인이 주효했다. 티로보틱스는 2024~2025년 반도체 진공 로봇·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의 정상 투자 사이클 재개가 진행되며 턴어라운드 기대가 반영되었다. 제닉스로보틱스는 2024~2025년 전자·자동차용 스마트팩토리 수요가 확대되며 산업용 로봇 SI 프로젝트 수주가 빠르게 증가한 점이 주효했다. 반면 실적 모멘텀이 약한 일부 기업들은 상승 탄력이 제한되며 상대적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뉴로메카, 티엑스알로보틱스의 주가상승률은 각각 6.6%, -26.5%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YTD 주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산업용 로봇/로봇 부품 기업의 YTD 주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의 2025F PSR은 4.3배로, 현대무백스·LG CNS 등 대형 SI 업체(1.9배) 대비 높고, 국내 물류로봇 기업 평균(25.5배) 대비 낮은 수준

티엑스알로보틱스는 2025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공모 가격은 13,500원이었으며(공모 희망 밴드는 11,500원~13,500원), 2025년 12월 4일 기준 종가는 15,220원이다. 실적 둔화 우려로 주가 하락했으나, 정부 주도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물류 자동화 투자 확대에 따라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했다.

밸류에이션 비교 지표로는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이 대부분이 적자 구조에 있어 이를 고려해 PSR을 선정했다. 티엑스알로보틱스의 2025F PSR은 4.3배로, 현대무백스·LG CNS 등 대형 SI 업체(1.9배) 대비 높고, 국내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평균(25.5배) 대비 낮은 수준이다. 대형 SI 업체는 안정적 매출 구조와 성숙 산업 특성으로 PSR이 낮게 형성된다.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의 경우 상당수 컨센서스가 부재하여, 당사 리서치센터 추정치가 존재하는 나우로보틱스(21.3x), 뉴로메카(17.5x), 클로봇(21.4x), 씨메스(41.7x)값과 비교했다. 동사가 이들 기업 대비 낮은 PSR을 보이는 이유는 매출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동사는 휠스터 등 물류 터키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 AMR 등 로봇 사업부와 관련된

노출도가 낮은 반면, 나우로보틱스와 뉴로메카는 산업용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중심 매출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클로봇·씨메스는 AI 기반 AMR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 높은 마진 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해외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과 비교하면, 중국 Geek+는 2025F PSR 7.3배로 고성장 이커머스 중심의 대규모 G2P(Go-to-Person) 사업모멘텀을 반영해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Rockwell Automation은 제조·공정 자동화 기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반영해 2025F PSR 4.8배로 형성되어 있다.

티엑스알로보틱스의 공모가는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실적을 반영하여 산출되었으며, 물류자동화와 로봇자동화 각 사업부의 특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PSR 배수가 적용되었다.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경우 유일로보틱스(적용 매출액 351억 원, PSR 10.78배)와 로보티즈(적용 매출액 310억 원, PSR 14.34배)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여 평균 PSR 12.56배가 산출되었다. 반면 물류자동화 사업부는 코닉오토메이션(적용 매출액 506억 원, PSR 1.37배)과 현대무백스(적용 매출액 2,898억 원, PSR 1.59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평균 PSR 1.48배가 도출되었다. 로봇자동화 사업부에 적용된 PSR 배수(12.56배)는 물류자동화 사업부(1.48배) 대비 약 8.5배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로봇자동화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사의 로봇자동화 사업부 매출액은 3Q25 누적 기준 약 35억 원(-74.5% YoY)을 기록하며 3분기 누적 전사 매출 중 약 14.3%에 불과했다.

즉, 동사가 향후 국내 로봇 기업으로서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높은 PSR 배수가 적용되는 로봇자동화 사업부의 매출 비중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AMR 제품군의 레퍼런스 다각화를 통해 매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동사는 2028~2029년까지 로봇자동화 사업부 매출 비중을 약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긴 호흡에서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로봇자동화 사업부 매출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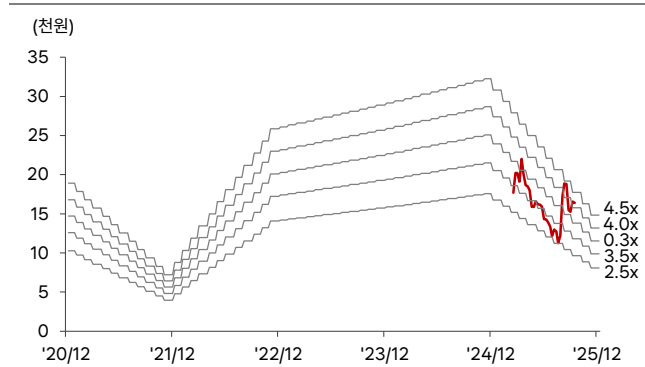
티엑스알로보틱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위안화, 달러, 십억원, 백만원화, 백만달러, 배)

지수 및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PSR			PBR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코스피	4,029	3,229,056	3,728,338	3,035,021	3,536,301	n/a	0.9	0.9	1.2	0.9	0.9
코스닥	930	499,227	334,118	107,389	129,444	n/a	2.3	2.0	3.3	2.3	2.0
티엑스알로보틱스	15,220	235	57	47	55	n/a	4.8	4.3	n/a	3.4	3.4
현대무비스	62,900	6,094	5,983	6,364	7,301	n/a	1.0	0.9	n/a	1.0	0.9
LG CNS	10,250	1,142	341	413	510	1.2	2.8	2.3	n/a	2.8	2.3
대형 SI 기업						1.2	1.9	1.6	n/a	1.9	1.6
유일로보틱스	86,800	1,015	35	n/a	n/a	8.6	n/a	n/a	n/a	n/a	n/a
LS터라유텍	6,920	145	57	n/a	n/a	1.5	n/a	n/a	n/a	n/a	n/a
티로보틱스	17,360	375	61	n/a	n/a	2.2	n/a	n/a	n/a	n/a	n/a
제닉스로보틱스	16,300	214	63	n/a	n/a	1.5	n/a	n/a	n/a	n/a	n/a
나우로보틱스	24,200	314	12	14	n/a	n/a	21.3	n/a	n/a	21.0	n/a
뉴로메카	30,650	348	25	20	n/a	12.0	17.5	n/a	28.0	n/a	n/a
클로봇	44,700	1117	33	52	71	5.7	21.4	15.5	3.7	18.3	16.9
씨메스	36,350	425	7	10	21	33.5	41.7	20.1	3.8	7.1	8.1
국내 주요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9.3	25.5	17.8	11.8	15.5	12.5
Peer 그룹 평균						8.3	17.6	9.7	11.8	10.0	7.0
Geek+(중국)	23	4,409	2,409	3,203	4,285	9.7	7.3	5.5	19.5	16.1	12.0
Rockwell Automation(미국)	400	45,346	8,342	8,833	9,364	5.1	4.8	4.6	11.3	9.8	8.8
해외 AMR 기업						7.4	6.1	5.1	15.4	13.0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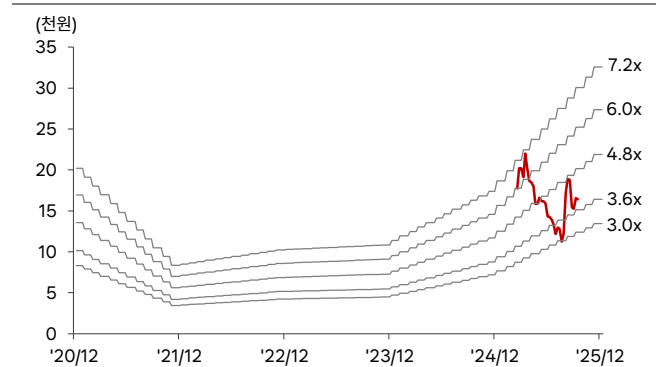
주: 2025년 12월 4일 종가기준. 유일로보틱스, LS터라유텍, 티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2025F, 2026F 컨센서스 부재. 뉴로메카, 2025F는 당사 리서치센터 추정. 클로봇, 씨메스 2025F, 2026F는 당사 리서치센터 추정
 자료: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PS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티엑스알로보틱스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높은 단일 고객사 의존도

높은 단일 고객사 의존도는 리스크 요인

티엑스알로보틱스의 리스크 요인은 편중된 매출 구조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은 2023년 72%, 2024년 65% 수준이었으며, 3Q25 기준 85%까지 확대되었다. 단일 고객사 중심의 매출 구조는 향후 매출 안정성 약화와 가격 협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주요 고객사가 공급망 효율화를 위해 벤더 수를 축소하거나 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대형 고객사와의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동사는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고객사의 CAPEX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도 리스크 요인이다. 글로벌 이커머스 및 3PL 기업들은 경기·금리 등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물류센터 확장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커머스 성장을 둔화, 물류 자동화 투자 속도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수주잔고 및 매출 성장률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요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하락할 경우 동사 전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동사는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레퍼런스 확대를 추진하며 고객사 다변화를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로봇자동화 사업부 매출 증가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65	332	572	468	547
증가율(%)	121.8	25.4	72.4	-18.3	17.0
매출원가	188	258	468	395	460
매출원가율(%)	70.9	77.7	81.8	84.4	84.1
매출총이익	77	74	104	73	88
매출이익률(%)	29.0	22.2	18.1	15.5	16.0
판매관리비	26	38	51	85	96
판매비율(%)	9.8	11.4	8.9	18.2	17.6
EBITDA	56	42	59	10	6
EBITDA 이익률(%)	21.0	12.8	10.3	2.2	1.1
증가율(%)	16.7	-23.7	39.6	-82.6	-40.6
영업이익	50	36	53	-12	-9
영업이익률(%)	19.1	10.7	9.2	-2.6	-1.6
증가율(%)	14.5	-29.6	48.2	적전	적지
영업외손익	3	-17	-10	4	5
금융수익	1	1	1	5	2
금융비용	3	18	11	8	5
기타영업외손익	5	0	0	7	7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3	19	42	-8	-4
증가율(%)	10.5	-64.7	125.6	적전	적지
법인세비용	19	-3	4	-1	-1
계속사업이익	34	22	38	-7	-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4	22	38	-7	-3
당기순이익률(%)	12.9	6.5	6.7	-1.6	-0.5
증가율(%)	-16.7	-36.4	76.8	적전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3	22	38	-7	-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2	19	-93	65	-1
당기순이익	34	22	38	-7	-3
유형자산 상각비	4	6	6	22	15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0	0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0	-24	-158	43	-18
기타	-7	14	20	7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2	-61	-7	-1	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2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	-53	-35	-2	0
기타	-35	-8	26	1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9	72	33	322	-6
차입금의 증가(감소)	41	93	24	-76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100	406	0
배당금	-17	-12	0	0	0
기타	-5	-9	-91	-8	-6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48	30	-66	386	-6
기초현금	13	62	92	25	411
기말현금	62	92	25	411	405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234	341	335	650	685
현금성자산	62	92	25	411	405
단기투자자산	25	30	0	0	0
매출채권	23	96	109	84	98
재고자산	122	115	137	103	120
기타유동자산	2	8	64	52	61
비유동자산	325	373	397	377	362
유형자산	154	202	230	210	195
무형자산	152	152	155	155	155
투자자산	1	5	5	5	5
기타비유동자산	18	14	7	7	7
자산총계	558	714	732	1,027	1,047
유동부채	243	446	279	251	273
단기차입금	54	104	115	115	115
매입채무	51	37	35	29	34
기타유동부채	138	305	129	107	124
비유동부채	164	108	155	79	79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90	107	153	77	77
기타비유동부채	74	1	2	2	2
부채총계	407	554	433	329	352
지배주주지분	165	175	299	698	695
자본금	2	2	62	77	77
자본잉여금	445	445	486	876	876
자본조정 등	-406	-406	-420	-420	-42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24	134	172	165	162
자본총계	151	161	299	698	695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N/A	N/A	N/A	3.4	3.4
P/S(배)	N/A	N/A	N/A	4.8	4.3
EV/EBITDA(배)	2.2	4.5	4.2	207.9	351.1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198	188	325	-50	-18
BPS(원)	1,431	1,517	2,432	4,515	4,497
SPS(원)	2,413	2,878	4,854	3,152	3,542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24.2	12.8	16.2	-1.5	-0.4
ROA	8.4	3.4	5.3	-0.8	-0.3
ROIC	12.8	12.1	11.2	-2.1	-1.4
안정성(%)					
유동비율	96.0	76.4	120.4	259.5	250.8
부채비율	269.1	344.7	144.9	47.2	50.6
순차입금비율	91.3	128.6	83.3	-30.5	-29.7
이자보상배율	15.9	5.2	5.3	-1.6	-1.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5	0.8	0.5	0.5
매출채권회전율	11.0	5.5	5.6	4.8	6.0
재고자산회전율	3.7	2.8	4.6	3.9	4.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티엑스알로보틱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2.08	티엑스알로보틱스-검증된 물류자동화, 성장할 로봇자동화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간접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